

< 2024년 교회표어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일 4:16)

가정 같은 교회, “나 홀로” 크리스천의 종결

- 사도신경

- 찬 송 235장

-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 기 도

- 성경본문 전도서 4장 9-12절

-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 삶 나누기 당신은 혹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그 때 나를 위로해 주고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소개해주세요?

세속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현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사회는 복음이 다스리는 사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는 세속화, 다원주의 사회이며 여기서는 모든 것이 경쟁을 지향하고 물질을 추구합니다. 복음과는 반대되는 가치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살수록 세상을 살아내는 일은 오히려 더 어렵게 보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가치를 대항하는 세속사회 속에 사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교회 안의 가정인 "소그룹"을 두셨습니다.

1. 소그룹, 교회 안의 작은 가정

누가복음 6장 12-19절에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은 먼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고 그 후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기도가 먼저요 그 후에 공동체요 그 다음이 사역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나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공동체를 찾아가 마음을 나누고 비로소 사명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2. 성령님은 소그룹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신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듯이 교회 안의 가정인 소그룹을 통해서 성령님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십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삶의 상처와 아픔을 솔직히 나누면서 영적 터치가 일어납니다. 함께 아파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성령님은 한 사람을 강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인격의 변화는 자기와 직면할 때 일어나는데 소그룹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픔이 나뉘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 두 제자들을 따로 모아 밤에 늘 가르치셨고 이를 통한 인격의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도 이후 집에서 삼삼오오 떡을 떼며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행2:46)

3. 성령님은 소그룹 안에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신다.

성도가 세상 속 사명자로 살다보면 지치기도 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회 안의 작은 가정인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홀로의 위험성”과 “함께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전4:10-11)

성도는 세상에 흩어진 씨앗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뿌리는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들이 온갖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견뎌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보통 힘이 들지 않습

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그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홀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존재 방식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세상을 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홀로"로는 결코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전인(全人)이 교회 안의 작은 가정인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5월은 전교인 소그룹 참여의 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소그룹에서 성령이 주도하시는 변화의 성장을 이뤄가는 새문안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1. 세속사회 속에서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소중한 모임은 무엇인가요? (힌트: 교회 안의 가정)
2. 소그룹 모임을 왜 교회 안의 가정이라고 부를까요?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니다.
3. "홀로"가 아니라 "함께"여서 현실적인 위기와 신앙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니다.
4.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